ITER 카다라쉬에서

덧문 틈으로 파고드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깨어보면 창문밖으로 구름 한 점 없이 파아란 하늘이 오늘도 어김없이 펼쳐져 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아직은 낯설지만 아기자기한 이층집 들 중의 하나에 텃밭을 일구고 있노라면 남프랑스의 한적한 감동이 밀려온다. 한국보다는 일과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하는 관계로 ITER 기구와 프랑스 정부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마노스크 국제학교에 다니는 초등생 딸래미와 프랑스어 공부에 맛을 붙인 안사람과 바쁘게 작별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차창 밖으로는 보기 좋게 펼쳐진 밀밭 들판과 그 너머의 나즈막한 언덕들 그리고 자연 자체보다 더 예쁘게 풍경을 장식하기 위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프로방스풍 가옥들이 하루일의 서곡을 장식한다. 차창 안으로는 안사람이 좋아하는 피아노 소품들이 MP3 플레이어를 통해 감미롭게 귓전에 맴돈다. 20분 정도의 풍경 감상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오늘도 어김없이 받은 편지함이 무거워져있고, 일정표의 회의들과 작성되어야 할 서류들이 나를 기다린다. TBM 업무의 특성상 ITER TB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 담당자들과의 기술개발업무뿐만 아니라, ITER 기구 내 여타부서와의 인터페이스 조율업무도 추진하여야 하므로 책상 위의 전화통이 심심치가 않다. 거침없이 작성하여야 하는 기술문건들 이외에도 관련된 엔지니어들과의 회의가 나를 끊임없이 흥분시킨다.

일주일에 한번씩 PDDG에 의해 주관되는 Project Progress 회의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Mr. TBM이 호출된다. 지난 일주일간 진전시킨 사항과 다음 일주일간의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일단 크게 한번 숨을 돌린다. 가끔 점심시간에는 이곳에 같이 계시는 한국분들(존칭생략, DDG 김용환, 인사담당 조태섭, 품질보증담당 박성국, 안전담당 이정배, 프로젝트 오피스 이철형, 조립치구담당 임기학, 열차폐체담당 허남일)과 자리를 같이하는 즐거움이 기다린다.

작렬하듯이 쏟아지는 태양의 뜨거움에 재빨리 사무실에 들어가 냉방기를 가동시켜 시원함을 추구하나 오후 업무에도 유일한 느긋한 시간은 안사람과의 전화통화뿐이다. 회의 참석차 방문하시는 출장자들을 통해 본국 소식과 동향을 듣고 이곳 ITER 기구 본부쪽 상황도 알려드리지만 결론은 이렇게 어려운 국제프로젝트에서 한 분야를 맡은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거울 뿐이다.

아직은 본격적인 건설업무가 시작되기 전이라 조직을 키우고 기본적인 설계문건 들을 정비하는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출범할 정식기구 업무와 본격 건설업무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KSTAR 건설업무와 마찬가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된다. 아국이 분담하기로 약속한 기기관련 업무는 아국엔지니어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추진하므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그 이외의 기기(다이버터, 가열장치 등) 관련세부정보는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아국입장에서는 관련세부정보 입수를 위해 다른 접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 다이버터, 블랑켓 업무는 Test Blanket 업무와 같은 Division에서 수행되므로 관련 정보는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프랑스식 점심식사와는 다른 한국식 정찬이 나를 기다린다. 약 2주일에 한 번씩 아시안 식품점에 들르면 어지간한 부식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물가가 문제이다. 하여간 보글보글 찌개백반을 마당에 놓고 지는 석양과 시원한 소슬바람에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외국생활에서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어준다. 향후 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ITER 기구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돕고, 가족들끼리도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ITER Test Blanket Module 담당 김창석 박사]